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3부

화해의 대장정

–

제3장 4·3의 해원(解寃)과 화해 / 장윤식

제1절 화해와 상생

제주4·3평화재단
JEJU4·3 PEACE FOUNDATION

3. 화해와 상생의 상징마을

제주도의 일부 마을에는 4·3으로 인한 상흔을 씻고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을 단위별 4·3희생자와 호국영령, 순국선열 등을 함께 추모하는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4·3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산간에서 해안마을로 피난했던 주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줬던 사례가 발굴되기도 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英慕園)

[그림 1]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

하귀리는 일제 강점기 야학운동 등 항일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곳이다. 민족의식을 고취하던 그들이 해방 직후 하귀중학원 등 교육기관 설립을 주도하고 일부는 교사가 되기도 했다. 1945년 개교한 하귀중학원 학생들은

1947년 3·1절 집회와 연이은 3·10 총파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에 이후 전도에 걸친 검거 선풍의 와중에 하귀중학원생 대부분을 1947년 여름 제주경찰서에 구금하기도 했다. 이때는 대부분 석방됐지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4·3 발발과 5·10 선거 무효화 이후 하귀리 주민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거세어졌고 이에 학생과 청년 등은 피난처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몸을 숨긴 것이 또 다른 빌미가 되어 쫓고 쫓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애꿎은 가족이 희생당하는 등 숱한 시련을 겪었다.

토벌대에 의한 대표적 희생사건은 1948년 5월 가문동 웬뱅듸 사건을 비롯해 12월의 외도지서 장작사건, 비학동산 학살, 하귀국민학교 집결과 색출사건 등이다. 뿐만 아니라 1948년 12월 30일에는 무장대가 하귀리를 습격해 국민학교 건물과 민가 일부를 불태우고 숙직교사와 민보단원을 학살하는 등 무장대에 의한 희생도 있었다.

이렇듯 전대미문의 참화를 입은 하귀리는 침잠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귀'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취업 등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했다.

영모원 조성 당시 하귀2리의 고창선과 함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 앞장서서 일했던 하귀1리 배광시(남, 1938년생)는 "하귀리는 일제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아 눈총을 받

더니,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하귀중학원이나 단국중학원에 재직했던 선생님들이 요즘 말로 진보적 시각을 가졌다고, 또 학생들이 그 선생들을 잘 따른다고 모두 당국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4·3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80세 좀 넘을 나이 일 우리 선배들이 엄청 희생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4·3사건이 끝난 후에도 하귀라고 하면 취직이나 취학 등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한테만 연좌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이름에도 연좌제가 따르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1953년 북제주군 조례에 의거 하귀1리를 동귀리로, 하귀2리를 귀일리로 개칭했다. 전통적인 마을 이름까지 바꿨으니 주민들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또한 마을 이름이 다르니 점점 마을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재산권 행사 등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1990년 들면서 마을 이름을 환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누대로 이어오던 마을 이름을 찾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점점 멀어져만 가는 두 마을의 갈등을 극복하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1995년 1월 1일 북제주군 조례 제1337호에 의거 원래의 하귀1리와 2리로 법정리명이 환원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이명(里名) 환원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나돌았다.

배광시는 "리명이 다시 환원되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1리, 2리 마을 사람들 간의 소통도 잘 되고 화합이 좋았죠.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문화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중 하나가 '하귀'라는 마을 이름까지 변경해야 했던 4·3희생자 영령들을 군경에 의했든, 무장대에 의한 희생이든 한자리에 모실 추모 공간 얘기가 나왔어요."라고 했다.

이명(里名) 환원기념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귀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배광시·고창선)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4·3영령은 물론 일제강점기 하귀리의 얼을 지켜 온 순국선열과 6·25와 베트남전 참전희생자를 한자리에 모신 추모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즉, 하귀리를 지켜왔고, 역사의 소용돌이에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영모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그 첫 활동으로 2000년 '부정에 항거할 줄 아는 하귀혼(魂)'을 살리자며 '하귀혼 살리기'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걸궁패가 마을을 돌며 주민과 상가,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그 결과 단 이틀 동안 3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모을 수 있었다. 출향 인사들의 모금도 이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보전기 김용현 사장은 주민 모금액에 버금가는 3천 100만원을 기탁해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김 사장의 헌금 기탁은 더욱 의미가 깊었는데, 그것은 기탁자의 부모가 4·3 당시 무장대 피습에 의해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영모원 조성이 4·3 당시 군경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까지도 한데 모셔 화합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취지 설명을 듣고 선뜻 기탁을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의

향우회, 재일동포 등이 대거 모금에 동참했고, 2003년 5월 27일 영모원 제막식을 가질 수 있었다.

영모원 조성 취지는 아래의 '위령단을 세우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명을 다하였다면 이는 애국자로서 그 정신과 위업을 길이 보전하고 계승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중략) 일제 강점으로 국권을 빼앗겼을 때 야학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에 피검되어 모진 고문과 형옥을 치르셨던 선열들의 넋과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국방전선과 해외전장에서 산화한 전몰호국영령을 추모하고, 4·3에 무고히 희생된 채 구천을 헤매는 원혼들의 명복을 빌고자 향민의 뜻을 모아 영현비(英顯碑), 충의비(忠義碑), 위령비(慰靈碑)를 세운다. 이 영역(靈域)은 선인들이 남긴 숭고한 충절의 정신을 기리며, 후세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

영모원에는 가운데 위령단이 세워져 있고 우측에 '영현비'와 '충의비' 좌측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위국절사 영현비'에는 일제치하 민족혼을 심고자 크고 작은 저항 운동을 벌인 강문일과 박영순(1955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 건국포상) 등 22명의 항일운동가를 비롯해 모두 100여 명의 넋을 기리고 있다. 또 '호국영령 충의비'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산화한 충렬의 넋과 4·3 당시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47명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 '4·3희생자위령비'에는 모두 303명의 4·3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영모원의 화해정신은 위령비문에도 드러난다.

> "이 돌 앞에서는 더 이상 원도 한도 말하지 말자. 다만 섬나라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한번쯤 여기 와서 고개를 숙이라."

하귀리 영모원 조성은 이민(里民) 화합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 매해 1월 3일 지내는 위령제에는 도내 거주 주민들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까지 참석하여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주민들 간의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마을 젊은이들이 위령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제단 정비에 솔선수범하는 등 세대전승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실제 재무부차관을 역임했던 고범준 박사는 생전에 영모원위령제를 찾아 "나는 원래 하귀리가 고향인데, 어느 순간 고향마을(이름)이 없어져 본의 아닌 실향민이 되어버렸었다."고 회고할 만큼 이명(里名) 환원과 영모원 조성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이다.

또한 매해 3월 1일, 4월 3일, 6월 6일에는 마을회의 임원들이 참배를 하는 등 선열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그 넋을 기리고 있다.

이제 영모원은 하귀리 주민의 화합뿐 아니라 역사의 고비고비에서 유명을 달리한 하귀리의 희생자들을 보듬어 역사의 화해를 시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제주4·3평화재단, 『4·3과 평화』 제15호, 2014).

2) 애월읍 상가리 위령단(慰靈壇)

[그림 2] 애월읍 상가리 위령단

애월읍 상가리는 2006년 3월 25일 4·3희생자 42위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 희생자 등 호국영령 19위를 한데 모아 추모하는 위령단을 건립했다.

이 위령단 건립 논의는 2003년 3월 임시향회를 통해 구성된 마을지 편찬 소위원회에서 출발한다. 이때 선출된 7인의 소위원회(김재문, 변옥규, 강상래, 양홍준, 양용택, 양동훈,변승택)는 마을지 편찬 모금과 더불어 위령단 건립기금 모금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를 마을에 제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상가리 개발위원회·마을지 편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위령단 건립을 최종 의결하고 전권을 소위원회(위원장 김재문)에 위임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전몰군인과 4·3희생자를 한 울타리에 모신 위령단을 건립키로 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부지(애월읍 상가리 1328번지의 12, 471㎡)를 확정하고 위령단을 건립한 것이다.

위령단을 건립하는 취지는 고성기 시인이 쓴 '위령단을 세우는 글'에 잘 나타난다.

> 우뚝 솟은 한라 영봉은 그날의 슬픔을 산자락에 묻고 목이 메인 채 말이 없습니다. 굽어보는 남태평양 쪽빛 바다 속절없이 푸릅니다. 오늘 우리는 선조의 맥박소리 들리는 마을 작은 언덕에 모였습니다. 삼가 옷깃을 여미고 북받쳐 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산화하신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제단을 이곳에 세웁니다. 우리 상더럭마을 주민들의 정성과 염원을 모아 비극의 눈물을 닦습니다. (중략) 영령들이시어! 우리들 작은 정성을 한데 모아 위령단을 세우고 삼가 명복을 비오니 맺힌 한일랑 이제 다 잊으시고 편히 눈 감으소서. 희생의 참뜻과 뜨거운 마음을 영원히 기리고 후손에게 전하렵니다.

이 제단에 화해와 용서의 향불을 피워 큰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제 역사의 물줄기가 밝은 미래로 힘차게 흐를 것이니 영원히 살아 빛날 영령들이시어!

위령단의 오른쪽에 세워진 위령비에 42위의 4·3희생자, 왼쪽 충의비에는 19위의 전몰군인 영령의 이름을 새겼다. 이곳 위령단에서는 매해 4월 6일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상가리, 『상가리와 4·3사건』, 2011).

3) 장전리 추모원(追慕苑)

[그림 3] 장전리 추모원

장전리 추모원은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1950년 6·25전쟁으로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장전리민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공간이다.

2014년 9월 마을총회에서 추모원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원과 지역 자생단체 및 독지가들의 성금 등을 모아 2015년 6월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1월 조성을 완료했다.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550번지에 들어선 추모원에는 호국영령과 4·3희생영령 명단이 각인된 위령단(慰靈壇)을 비롯해 위령단의 좌우 양옆으로 호국영령을 기리는 충혼비(忠魂碑)와 4·3영령을 기리는 위령비(慰靈碑)가 세워졌다.

또한 위령단 하단에 시인 오승국의 '진혼서시(鎭魂序詩)' 추모시비와 추모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와 경과를 담은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추모원을 조성하며

한라영산의 혈기가 뻗쳐 솟고 녹고뫼 정기가 감겨 서린 땅, 우리 마을 주민들의 끈끈한 삶을 지켜 본 ' 니 를' 동산에 추모원을 조성한다.

1948년 4·3사건, 그 광란이 몰고 온 비극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평화로운 우리 마을도 진압작전이란 이름아래 초토화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좌우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박하게 살아온 마을 주민 일백여 명이 무고하게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또한 1950년 6·25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이었다.

당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꽃다운 젊은이들이 결연히 출정하여 치열한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아홉명의 용사가 장렬히 산화했다.

…(중략)…

추모원의 조성으로 영령님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마련된 것이다. 님들도 이 정든 옛 동산에 모여 편히 쉬고 정도 나누며 맺힌 한도 내려놓으시고 고이 영면하시리다.

이 추모원은 우리들의 성지가 되고 후세들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와 충·효·예의 산 교육장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님들의 유지를 받드는 우리들의 최선의 도리라 여기며, 추모원을 영세에 보전할 것이다.

2015. 11. 21

장전리민 일동

4) 남원읍 신례리

4·3을 계기로 해안가 마을과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진 마을이 있다. 바로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1·2리가 그곳이다. 신례리는 '한참(2㎞)'을 사이에 두고 신례1리(중산간)와 신례2리(해안가-공천포)로 나뉜다. 4·3 당시 신례1리에는 180가구 800여명이 살고 있었고, 신례2리에는 60여 가구 3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규모로 따지면 1리가 2리보다 3배 정도 큰 마을이다.

신례리 역시 4·3의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른 중산간 마을보다 늦은 12월 11일에 신례1리는 소개령이 떨어졌다. 소개령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12일 새벽 이삿짐을 꾸리던 중 우익단체인 '학생연맹'의 급습을 받아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희생이 이어졌다.

토벌대에 의해 신례1리 주민들이 죽음을 당하는 변고를 치르는 등 불행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개지인 신례2리 주민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더 이상의 큰 희생은 치르지 않았다.

신례2리 주민들은 3배 규모의 1리 주민들이 내려오자 가구당 2, 3가구를 받아들였다. 도의원을 지낸 양금석은 "저희 집은 소개기간 동안 공천포(신례2리)에 사는 김대국 씨의 밧거리에 살았습니다. 물론 집을 얻지 못한 주민들은 모래판 위나 함바를 지어서 살았죠. 저희는 거의 김씨의 가족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방이며 부엌을 같이 사용하고, 굴묵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 어려웠던 시기에 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아랫동네 사람들에게 신세를 진 것입니다.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4·3 당시 많은 일가친척이 피해를 본 정수현 씨도 비슷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오순란 씨 댁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폭도 가족으로 낙인찍혀 있던 우리 가족은 그 고

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57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족들과는 친부모,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 차원에서도 단합이 잘 이뤄져 마을간 다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제주의 소리, 2005. 4. 2. 발췌).